



## 부자의 도전은 끝이 없다... 충남 홍성 성지농장 노완모 대표 부자

고객홍보처

여기 돼지에 빠진 가족이 있다. 어느덧 35년째 돼지농장을 운영 중인 아버지가 1대, 이어 6~7년째 돼지를 돌보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아들이 2대. 부자가 함께 꾸리는 성지농장 노완모 대표 부자의 이야기다.



축사를 둘러 가꿔진 조경

이들 부자가 사는 곳은 충남 홍성군 덕실리. 어지간한 군 단위의 생산 물량이 한 동네에서 다 나온다고 할 만큼 축산 농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 근방의 가축 사육량이 약 5만두 정도라는 데 그중 대다수가 돼지를 키우고 있단다.

360°를 돌아보면 보는 방향마다 농장 한 두 개씩은 시야에 걸릴 정도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곳. 그곳에 약 5,000두의 돼지를 키우는 성지농장이 큼지막이 들어서 있다. 아버지 명의로 3,200~300두 정도 사육하는 농장이 하나, 아들이 맡아하는 약 1,800두 규모의 농장이 하나. 그렇게 구성된 농장을 아버지와 아들이 합심해 꾸려가고 있다.

취재차 찾은 이날은 1년에 2번 있다는 마을 안길 제초 작업차 자리를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사육두수 신고를 준비하고 있던 아들이 농장을 안내해 주었다.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조금씩 그 규모를 늘려온 끝에 현재에 이르게 됐다는 성지농장은 멀찍이 서야 간신히 한 프레임 안에 농장을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성지농장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한돈 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해 가꿨다는 조경이었다.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날이었지만 곳곳에 심어진 예쁘장한 나무들 덕에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냥 농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문제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 둘씩 키워온 것이다 보니 돈사 동선이 복잡하다는 것. 직선거리로 보면



축사 내부

가까운데 복잡한 동선 탓에 중간에 발이 붙숙 있기도 하고, 자돈사와 육성돈사 중에선 차로 옮겨야 하는 거리도 있다.

이러한 농장을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아들은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꼼꼼히 챙기고 있었다. 분만사와 모돈·이유 자돈사는 매일 둘러보고 나머지는 2~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살핀다고.

하나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농장. 그렇기에 이력번호 관리에 더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들 부자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져 머리를 싸맸지만 지금은 출하일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등 노하우가 생겼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대신 방역을 농장 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는 포인트로 꼽았다. 축산 농가가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악취 등 농장 환경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최근 뜨거운 이슈인 농장 환경 개선 관련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덜하다

했다. 하지만 그러한 밀집성 탓에 한번 질병이 들어오면 동네를 싹 돌고 나간다고 할 만큼 농장 간 전염성이 높아 축산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아무리 철저히 방역을 해도 동네에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 한번 들어오면 피하기가 쉽지 않다. 쥐나 고양이, 개가 오가며 옮길 수 있고, 새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올해도 20여 집 중 6곳을 빼고 나머지 다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올해는 운이 좋아 안 걸려 가슴을 쓸었다.”

이에 성지농장은 기본적으로 꼼꼼히 방역 관리를 하는 것에 플러스(+) 사육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찾았다. 질병이 잦은 곳인 만큼 폐사율을 줄이면서도 높은 등급의 출하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계속된 고민과 연구 끝에 성지농장은 평균 190일 정도를 사육기간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180일 정도에 첫 출하를 한다는데 여기서 조금만 당겨져도 등지방 상태가 안 좋아 등급이 떨어지기에 질병 문제를 안배하면서도 등지방 상태를 고려할 수 있도록 날짜 조절에 더 신경 쓰고 있단다.

출하날짜 외에도 농장 관리를 위한 부자의 노력은 다양했다.

“우리는 잘하는 농장의 노하우를 계속 들으며 그중에서 내가 안 하는 것을 찾고 하나씩 우리 농장에 접목해 테스트 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지속하거나 중단했다. 이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노력한 만큼 나아질 수 있었다.”

성지농장의 도전에는 아들의 남다른 노력도 빛났다. 제어 계측공학을 전공했다는 아들은 기계를 속속들이 파악한 후 포유모돈급이기를 설치할 때 기계 생산업체에 농장에 맞게 원하는 부분을 바꿔 달라 요청해 제작하는 등 전공 지식을 농장 관리에 십분 활용했다. 현재 농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1,200두 정도 사육 가능한 농장을 추가로 마련 중이었는데, 수시로 찾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공사하고 있다고 했다.

“농장을 잘 꾸러가자면 남과 다른 나를 찾아야 한다 생각한다. 돼지를 키우는 농장 중에 우리보다 더 잘하는 곳도 많다. 지금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자의 끊임없는 도전에 오늘보다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됐다. 🔄



농장 전경